



청송심씨 심벌마크

青松沈氏宗報

발행인 : 회장 심갑보
편집인 : 문화이사 심갑택
서울시 중구 을지로30길 47
전화 : (02)2267-7857
(02)2267-9339
FAX : (02)2269-7755
인쇄 : 대신인쇄
070-7779-3019

홈페이지 | www.csshim.or.kr

2016년 7월 30일 제120호

4세조 청성백재각건립추진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 일 시 : 2016년 7월 15일(금) 11:00
- 장 소 : 동보성 중식당 (서울 중구 퇴계로 18길5)
- 참석자 : 고문 심우영, 부위원장 심상화, 위원 상록, 상식, 민섭, 웅섭, 재면 재서, 감사 상렬, 간사 언태

■ 보고사항

- 재각건립 추진 경과보고
- 성금접수 및 기금현황

■ 결의내용

1. 재각 건축 도급계약 체결

2014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재각 건립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성금을 모아 왔으나 2016. 6. 30 현재 총 공사금액보다 4억여 원이 부족한 상태임. 그러나 현재 기금이 부족하더라도 재각 건립을 더 이상 지연하지 않고 재각 건축계약을 체결하여 2016년 8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완공하기로 의결.

○ 재각 건축 도급계약 주요내용

가. 공사범위

1)재실 40평, 2)삼문 7평, 3)담장(자연석 막돌담장 약100M), 4)협문

나. 공사기간 : 2016. 8. 1~2017. 7. 31

다. 공사금액 : 658,922,000원정(부가세 포함)

라. 계약서 양식 : 정부에서 고시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마. 재실공사 공정 예정표

- 1) 기초공사 및 주초설치 (2016년 10월 중 설치)
- 2) 목재 치목 및 기타작업 (2016년 8월부터)
- 3) 본 공사 착수 (2017년 2월 중)
- 4) 재각 기와공사 (2017년 3월 하순부터 4월 중순)
- 5) 기타공사
 - * 삼문, 담장 등 (2017년 4월 중순부터 6월 중순)
- 6) 주변정비 및 마무리 공사 (2017년 6월 중순부터 7월 말)

2. 재각건립 부족예산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부족한 재각건립 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년 8월부터 2차 성금운동을 전개하고, 기타 부족한 재각건립 기금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적극 추진하기로 의결

2016년 7월 15일
재각건립추진위원회
언태 간사



재각건립위원회의 개최 장면

2016년 대종회 뿌리교육 및 교양강좌 실시

- ◇ 일시 : 2016년 7월 23일~24일(1박2일)
- ◇ 장소 :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중앙로 315 주왕산온천관광호텔
- ◇ 주관 : 청송심씨대중회
- ◇ 후원 : 청송심씨약은공청송총회

7월 23일 (첫째날)	14:00-16:00 동영상 (심씨의 고향, 선현의 발자취) 16:00-18:30 시조참배 및 사적지 답사: 중대산 묘소 →만지송→시조 묘소→만세루→보광사→ 현비암→약은공 단소→송소고택 20:00 청송군청 주관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7월 24일 (둘째날)	08:30-09:20 회장인사 및 대종회 소개 09:30-10:20 심후섭 박사 강의(튼튼한 뿌리) 10:30-11:20 동영상(선대사적) 11:30-12:20 심상철 교수 강의(개천에서 용 났네) 14:00 교육종료 해산 (동영상 "용의 눈물"은 귀가 버스 안에서 시청)

청소년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름방학 기간에 교육일정을 잡았다. 12시에 교육장에 집결하여 인사를 나누니 같은 혈육이라 금방 친하였다.

중대산 참배를 시작으로 시조 묘소에 당도하니 주변에 울창한 소나무와 잣나무가 병풍처럼 펼쳐져 있다.

시조묘소 참배를 마치고 능광 전 청송유사로부터 "소헌(昭憲) 인순(仁順) 두 왕후가 시조 산에 잣나무를 심게 하고 청송부로 하여금 수호하게 하였으며, 제수는 관청에서 연 4회 봉행하게 했고, 공조의 장인 27명을 제물군으로 보냈다"는 말씀을 듣고, 왕릉과 같은 시조묘소의 위세를 다시 한 번 돌아보며 명문가 후손으로서의 자긍심을 느꼈다.

세종대왕께서 명하여 건립하였다는 만세루와 우리 시조의 수호사찰이었던 보광사를 거쳐, 평생을 대종회의 발전을 위해 봉사와 희생을 아끼지 않으셨던 故 성택 초대회장님의 공적비와 故 2대 명구회장님의 송덕비 앞에서 모두 숙연한 자세로 고인의 명복을 빌어드렸다.

찬경루에 도착하니 궁궐 같은 웅장함에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소헌왕후 8대군이 외가인 청송 심씨의 시조를 위해 1428년(세종10년)에 청송군수 하담(河澹)이 건립하였고, 찬경루(讚慶樓)라는 이름은 보광산에 있는 시조묘소를 바라보며 '우러러 찬미 한다'는 뜻에서 지어졌다고 청송 재흥 관장이 설명해 주었다.

이어서 4세조 약은공 선조님의 재각인 경의재(景義齋)를 둘러보고 약은공(諱:元符) 5세조(諱:天潤) 6세조(諱:孝尙)가 모셔져 있는 단(壇)에 참배를 마친 후 송소고택 방문을 끝으로 순회일정을 모두 마쳤다.

저녁식사 후에는 청송군청에서 뿌리교육 참가자들을 위하여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를 열어 주었으며, 멋진 공연으로 힘들었던 하루가 힐링 될 수 있었다. 음악회를 개최해 주신 청송군청과 문화산업담당인 남규 일가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둘째 날은 오전 8시부터 상화 부회장의 뿌리교육에 대한 취지와 인사말씀에 이어 언태 총무이사의 대종회 소개와 인터넷 사용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이어서 교양교육 시간에는 심후섭 박사의 "튼튼한 뿌리"라는 주제로 시조, 계보, 벼슬, 세와 대 등에 대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문답 형식으로 알기 쉽게 강의해 주셨다.

심상철 교수의 두 번째 강의는 "개천에서 용 났다"라는 제목으로 성공한 청소년들의 예를 들어가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목표를 세워 꾸준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강의로 참석한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주었다.

100여 명의 일가들이 1박2일 동안 한 몸이 되어 뿌리교육에 열중하면서 모두 뿌듯해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보람을 느끼면서 무더위 속에서도 기꺼이 참석해 주신 많은 일가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6년 7월 25일
대중회 갑택
문화이사



대중회 상화 부회장 인사 장면

청송심씨청화부원군파종중 임시총회 결과보고

◇ 일 시 : 2016년 6월 16일(목) 오전 11시

◇ 장 소 : 성균관 유림회관 (서울 종로구 성균관로 31)

◇ 참석자 : 862명

- 직접 참석자 수 : 411명

- 출석권 위임자 수 : 451명

◇ 의결내용

부의안건	의 결 사 항
정관개정안	원안대로 의결
임원선출의 건	회장(1), 부회장(1), 감사(2), 총무이사(1), 이사(30) 선출
소송행위 추진 및 재산 관련 결의의 건	1. 1962년도에 안성시 당왕동 산19번지 등 19필지에 대하여 청화부원군파종중 명의로 보존등기를 경료(經了)한 것은 불법 무효의 등기임을 확인한다. 2. 2014. 3. 20 청송심씨대종회 명의로 정당하게 이전한 대종회와 청화부원군파종중 간의 소송(수원지법 평택지원 2013가합3851) 결과를 추인하고, 이에 대한 재심소송은 취하하기로 한다. 3. 5처 묘소의 모든 위토(전·답·임야)가 대종회 소유임을 재확인하며, 현재 진행 중인 서울고등법원 2015나2022715 보상금 반환 사건에 대하여 대종회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기로 결의한다. 4. 향후 대종회와 5처 묘소의 위토 소유권을 둘러싼 불필요하고 부당한 재산권 분쟁을 일으키지 않기로 한다.
수권결의의 건	제3호 안건에서 결의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재가합2006 소송(현재 서울고등법원 2015나26353호로 진행 중)에 대한 취하 권한 및 서울고등법원 2015나2022715 사건(1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가합8419)에 대한 자백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하기로 한다.

청화부원군파종중 임시총회 소집인(능윤, 일용, 철유, 상화, 재현, 영섭, 상렬) 일동

대종회 부리교육을 통해서 알게 된 나의 정체성



심재익

(25세)

지성주사공파

전남대학교 3학년

2015년도 대종회 장학금 수혜 학생

방학을 했다. 관례대로 올 여름방학은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해 밥상머리에서 가족이 머리를 맞대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다. 농을 방(放)에 배울 학(學), 즉 배우는 것을 놓는 기간인데 그냥 마음껏 놀겠다고 나는 의견을 내놓았다. 형은 친구들과 함께 유럽 배낭여행을 가겠다고 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어머니께서는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셨는데, 아버지께서는 조건을 제시하셨다. 하고 싶은 대로 하기는 하되 대종회에서 주관하는 부리교육을 반드시 이수할 것이라는 조건을 제시하셨다. 나는 원래 역사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흔쾌히 수락하였다.

이렇게 하여 우리 가족은 대종회에서 주관하는 제9회 부리교육 및 교양강좌에 참여하게 되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날씨였고, 행사장소가 거주지인 광주에서 350여 킬로미터나 먼 거리에 있는 경북 청송이어서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내 본향을 처음 방문한다는 생각에 약간 설렘도 있었다.

행사 첫날(7/23, 토) 정오경 행사장인 주왕산온천관광호텔에 도착해 점심을 먹은 후 본격적인 행사일정이 시작되었다. 문화이사의 인솔로 시조묘소 참배 및 사적 답사 시간을 통해 나의 정체성을 찾는 시간을 가졌다. 가장 처음 보았던 중대묘소(中臺墓所)의 만지송(萬枝松)은 오랜 세월동안 푸름을 잃지 않고 뻗어 있었는데 이는 청송이라는 지명을 빛내는데 가장 어울리는 소나무가 아닌가 싶었다.

말로만 들었던 시조 흥부(洪孚) 할아버님의 묘소를 참배할 때는 그 웅장한 크기에 흡사 왕릉이 아닌가라는 착각을 할 정도였고, 명문 심가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의재(景義齋) 탐방 시에는 전리관서까지 오르셨으나 고려가 멸망하자 불사이군(不事二君)을 주장하시며 관을 벗어 나뭇가지에 걸어놓고 대신 초립을 꼭 눌러쓰고 두문동에 들어가 두문불출하셨던 4세조 악은공 원부(元符)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나는 사극

에서 이러한 장면을 본 적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신 분들께서 결국 장렬하게 최후를 맞이하신 것도 보았다. 그 때는 몰랐지만 이 사실이 나의 선조들께서 겪으셨던 상황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고 저절로 숙연해졌다. 이때 두문동으로 들어가시면서 두 아들에게 “벼슬을 멀리 하고 책을 읽고 농사를 지으며 남의 부귀를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충과 효도하는 가문이 되라”고 하셨다고 한다. 내 자신이 이런 상황에 당면하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라는 성찰을 하게 되었다.

송소고택(松韶古宅)은 조선시대 왕이 거주하는 곳을 제외하고 가장 크게 지을 수 있는 한도인 99칸의 크기를 자랑하는 우리 조상님들께서 머무르시던 고택이다. 문화관광가이드분의 재미있고 쉬운 설명을 들으며 한옥 구조에 대해 알게 되었고, 과거 우리 조상님들께서 숨 쉬던 공간에서 현재의 내가 숨 쉬고 있다고 생각하니 감회가 남달랐다.

행사 둘째날(7/24, 일) 오전 후섭 박사님의 “튼튼한 뿌리” 강좌에서는 환거청송(還去靑松)의 싹에서 “낙엽 가득한 길거리에서 동생은 먼저 고향으로 보내고 늙은 형은 구름만 쳐다보고 있노라”는 글귀에서는 아마 형제들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을 것이라고 해석할 때 숙연해지기까지 했다. 악은공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시는 능광 할아버지의 당당하고 자신에 찬 증가 예찬에 대한 설명을 듣고서는 이렇게 우리 뿌리를 알리고 지키시려는 엄청난 노력 덕에 수 백년 전의 조상님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알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너무나 존경스러웠다.

광운대 교수이신 상렬 감사님의 「우리 조상을 찾아서」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중국까지 탐방을 가신 이야기는 한없는 호기심을 자아냈다. 원류보(源流譜)에 흥부 시조 위에 충 → 공좌(또는 현좌) → 수정 → 흥부의 선대가 언급되어 있어 앞으로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반드시 찾아내시겠다는 포부를 밝히시며 이 이야기말로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뿌리 찾기 운동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 같기도 했다.

경북대 상철 명예교수님의 “개천에서 용났네”에서는 가난한 어린 시절의 이야기와 교수가 되어 대한화학회 회장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통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결정된다는 이야기를 하셨다. 창의력은 자유로운

교육환경 분위기에서 발견되며,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삶을 살리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다. All of you You Can do it!이라는 마지막 문구에 나는 다시금 자신감을 얻게됐다.

이 부리교육을 주관하신 어르신들께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느낄 수 있었다. 우선 우리 가문의 사적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의 노고를 알 수 있었다. 또 청송군청에 근무하시는 남규 일가께서 특별히 우리 부리교육 참가자들을 위해 유치하셨다고 하는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를 통해 자칫 딱딱하게만 느껴질 수 있는 프로그램 진행을 원활하게 하였고, 식사와 숙소도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였다. 이 교육에 모이신 분들께서도 따지고 보면 처음 뵈는 분들이지만 같은 심가라서 그런지 몰라도 따뜻함과 정겨움을 느꼈고 어색함이 없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미 우리 가문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어르신들께서 많이 오신 것에 비해 나이 어린 후손들은 별로 참여하지 않은 것이다. ‘청송 심문의 미래인 어린 후손들이 고리타분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부리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아서 이에 자부심을 갖고 미래를 이끌 인물들이 되어라’가 이 부리교육의 진정한 취지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도록 많은 심문의 어린 후손들이 부리교육에 참여해 이 행사를 밝게 빛내어 행사를 주최하시는 어르신들께서 큰 보람을 느끼시고 더욱 알차고 재미있게 프로그램을 구성하실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다.

천지만물들도 뿌리가 있듯이 우리 사람도 뿌리가 있다. 그 뿌리는 바로 우리 조상이다. 이러한 뿌리를 찾아서 우리들의 정체성에 대하여 알 수 있도록 일깨워준 부리교육에 참석할 수 있어서 행운이었다. 2016. 7. 26



좌로부터 재익 학생의 아버지, 형, 상철 교수, 본인, 어머니



누구나 꼭 알아야할 외래어 상식(3)

- 1) 갈라쇼(GALA show) : 공연한 작품 중에서 하이라이트만 모아서 쇼처럼 보여주는 것.
- 2) 플래시 몹(FLASH mob) : 불특정 다수인이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모여 주어진 행동을 하고 곧 바로 흩어지는 것. 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플래시몹이라 한다.
- 3) 핸디캡(handy cap) : 결점. 단점
- 4) 로망(Roman) : 낭만. 소망
- 5) 갭이어족(Gap Year 族) : 영국에서 대학 진학을 앞둔 학생들이 여행이나 인턴십, 봉사활동 등으로 경험을 쌓으며 진로를 탐색하는 기간을 일컫는 갭이어(Gap Year)라는 용어에 '무리'를 뜻하는 족(族)을 합성한 말, 국내에선 퇴사후 자아발견을 위해 잠시 휴식기를 갖는 사회 초년생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 6) 멘토(mentor) : 지혜나 신뢰로 한사람의 인생전반을 이끌어 주는 사람 조직에서 후진들에게 조언과 상담을 해주고 도움을 주는 사람 우리말로 멘토와 관련이 있는 단어로는 후원자, 선생님, 선배 등 롤 모델(Role Model)
- 7) 유커(遊客, Youke) : 중국말로 여행자를 의미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인 관광객"을 말한다.
- 8)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 온라인 상에서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 9) 트위터(Twitter) : 140, 자 이내 단문으로 개인의 의견이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이트다.
- 10) 랜드마크(Land mark) : 어떤 지역을 대표하거나 구별하게 하는 표지
- 11) 팔로잉(following) 팔로어(follower) : 트위터는 팔로잉과 팔로어의 개념으로 구분된다. 팔로잉은 다른 사람의 글을 받아 보겠다는 일종의 구독 신청이고 팔로잉을 통해 나는 내가 구독 신청한 사람에게는 팔로어가 된다. 반대로 나의 글을 누군가가 받아 보겠다고 신청하면 그 사람은 나를 팔로잉 하는 나의 팔로어가 되는 것이다.
- 12) 사이코(psycho) : 사이코의 어원은 그리스어 프쉬케(Psyche)이다. 프쉬케는 접두사로 쓰일 경우 '정신'이란 뜻을 지니고 있으며, '정신'을 뜻하는 접두사 사이코(psycho)와 '질환'을 뜻하는 어미 시스(sis)가 합쳐져서 사이코시스(psychosis)란 말이 생겨났다. 즉, 성격이 이상하거나 정신병적 행동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 사이코시스라 하는데, 통상 이를 줄여서

- '사이코'라 부른다.
- 13) 아이러니(irony) : 아이러니는 모순, 역설, 이율배반, 부조화 등을 뜻하는 말이다.
- 14) 유토피아(Utopia) : 유토피아(Utopia)는 그리스어로 '없다'라는 뜻의 유(ou)와 '장소'라는 뜻의 토포스(topos)를 합쳐서 만든 말이다. 따라서 어원대로 하면 유토피아는 '이 세상에 없는 곳'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오늘날 유토피아는 그 개념의 본질을 뛰어넘어 '이상향(理想郷)'을 일컫는 보통명사로 쓰이고 있다.
- 15) 지르박(jitterbug) : 지르박은 영어 지터버그(Jitterbug)의 한국식 발음이다. 지터(jitter)는 '안절부절못해 신경질적으로 몸을 흔든다'는 뜻이고, 버그(bug)는 '뭔가를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란 뜻이다. 그러므로 지터버그(jitterbug)는 '열광적으로 몸 흔들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란 의미이다. 이것이 1930년대 후반부터 미국에서 유행한 4/4박자 사교댄스, 즉 남녀가 손을 맞잡고 다 가셔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는 등 자유롭게 몸동작을 반복하는 춤의 이름이 되었다. 영어 발음을 잘 못하는 일본 사람들이 지터버그(jitterbug)를 '지루바'라 발음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를 좀더 원어 발음에 가깝게 '지르박'이라 하였다.
- 16) 카니발(carnival) : 그리스도교 국가에서 사순절 직전 3~7일에 걸쳐 행하는 제전(祭典)으로써 '거리 축제'를 카니발이라 한다.
- 17) 카리스마(charisma) : 카리스마는 그리스어로 '은총', '은혜', '선물'을 뜻하는 카하리스마(kharisma)에서 나온 말이다. 오늘날에는 종교나 학문적 용어가 아닌 일반 용어로 '어떤 강력한 힘의 분위기'를 가리켜 카리스마라 한다.
- 18) 타블로이드(tabloid) : 타블로이드는 영어로 '평판(平板)'이라는 뜻의 테이블(table)과 '~와 같은'이란 뜻의 오이드(oid)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로, 보통신문 절반 크기의 신문을 말한다.
- 19) 헤게모니(hegemony) : 헤게모니는 '주도권' 또는 '패권'을 뜻하는 독일어 헤게모니에(hegemonie)의 영어식 표현이다. '힘의 주도권'을 뜻하는 말
- 20) 뷔페(buffet) : 여러 그릇에 음식을 담고 접시와 포크·냅킨을 따로 놓아 먹을 사람이 마음대로 덜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식사 방식. - 연재 끝 -



시조소소 입구 웅장한 소나무

상의유머

게의 속성

야심만만한 정치인들 세 사람이 해변을 따라 걸으며 단결과 화합을 약속하고 있었다. 그때 그들은 게를 잡고 있는 어부를 우연히 만났다. 어부는 게를 잡을 때마다 그것을 버드나무 가지로 엮은 바구니 속에 집어넣었다. 그들 중 3선에 빛나는 원로 국회의원이 바구니 안을 들여다 보면서 물었다.

“여보시오, 어부 양반! 바구니 뚜껑을 닫는 것이 좋겠소. 그렇지 않으면 게들이 기어 나와 도망가 버리지 않겠소!”

그러자 어부는 하던 일을 계속하며 통명스럽게 대답했다.

“뚜껑 따위는 필요 없어요!”

“아니, 뚜껑이 필요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요?”

“이 게들은 정치하는 놈들과 같아서, 그 중의 한 놈이 더 높이 기어오르려고 하면 다른 놈들이 그놈을 끌어내린단 말이요!”

- 대중회 관리부장 -



초등학교도 못나온 대통령

미국의 17대 대통령인 앤드류존슨은 긍정의 힘을 발휘했던 대표적인 사람이다.

그는 세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몹시 가난하여 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열살 때 양복점에 들어가 성실하게 일했고, 돈을 벌며 결혼한 후에야 읽고 쓰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이후에 존슨은 정치에 뛰어들어 주지사, 상원의원이 된 후에 16대 미대통령인 링컨을 보좌하는 부통령이 된다.

그리고 링컨 대통령이 암살된 후 미국 17대 대통령 후보에 출마하지만 상대편으로부터 맹렬한 비판을 당한다.

“한 나라를 이끌어 가는 대통령이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하다니 말이 됩니까?”

그러자 존슨은 언제나 침착하게 대답한다. 그리고 이 한마디에 상황을 역전시켜 버린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예수그리스도가 초등학교를 다녔다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지만 전 세계를 구원의 길로 지금도 이끌고 계십니다.”

“이 나라를 이끄는 힘은 학력이 아니라 긍정적 의지요. 미국 국민의 적극적 지지입니다.”

그가 바로 러시아로부터 알라스카를 사들인 앤드류존슨 대통령이다.

제공 : 상은 편집위원회 고문

종인 소개

심극택(沈極澤) 삼우중량물(주) 대표



심극택(沈極澤) (22世) 삼우중량물(주) 회장 악은공파

이번 중보의 종인소개 란에는 관향인 청송에서 태어나 수도권에 거주하시며 물심양면으로 대중회의 각종 사업에 열성으로 참여하시는 종인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뿌리는 하나이기에 일가들 모두의 마음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대중회에서 집행하는 각종 사업이 종인들 모두를 흡족하게 하지는 못할 것이지만 종인들 누구를 막론하고 건설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하고 타당성이 있는 사업엔 대중회의 각종 사업에 솔선수범하는 협조가 우리 대중회의 발전과 우리 후손을 위하는 가장 평범하고 진솔한 이론은 누구든 부정하지 못했기에 대중회 사업에 솔선수범하시는 종인을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 무슨 파 몇 대손이신지요?

본인은 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 관동리 양지마을에서 공무원을 지내신 선친 (휘. 의성)의 2남4녀 중 차남으로 악은공파 22세손으로 열두종반이 관향인 덕천리에 살았었고, 농경사회가 산업사회로 변화하면서 대부분 도시로 이주하였으며, 저는 1970년 서울로 상경하여 현재 고양시 행신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의 선친은 청송군청 농산과장으로 재직 시 유관기관 명예직을 두루 역임하시며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셨고, 정년퇴직 후 악은공 문중 종유사직을 수년간 수행하시고 심중이 인자하시고 덕망이 높으셔서 문중이나 지역민과의 친분이 돈독하여 선망의 대상이기도 하셨습니다.

모친은 영양 남씨이며 어문학을 하였고, 양지마을과 덕천리 관동2리 마을 일대 자녀 결혼식이 있으면 사돈지를 호롱불 밑에서 밤새워 가면서 대필해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요?

10여 년간 직장 생활을 하고 동업종에서 4년간 열심히 경력을 쌓아 1985년 삼우중량물이란 회사를 설립하여 기계장비, 공장이전, 반도체장비운반·설치를 최고의 기술진과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협력업체와의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해야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열정으로 신뢰 있는 기업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며 매년 한 단계씩 성장해나가는 사업체를 운영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노력해 왔습니다.

-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오신 배경은?

1985년 4월 삼우중량물 회사를 설립하여 삼성 전자 전자사업부와 반도체부문, LG전자, 롯데그룹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들의 기계장비 운반설치, 공장이전, 반도체장비 설치를 전문적으로 하며, 1992년 태평양중앙연구소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최고의 기술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노력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그룹 서성환 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2008년 9월 남양유업 주식회사 나주공장 전처리 및 UT설비 신규증설에 참여하여 나주공장 정의국 공장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경영의 성공비결은 신뢰와 빠른 판단력이

라고 생각하며 조직의 화합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AP-SYSTEM 회사에서 제조하는 반도체 장비를 삼성전자 아산 공장에 설치하고 있으며, 기술력을 인정받아 중국현지 공장에 매년 6~7회 이상 출장하여 고유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회사가 발전을 거듭하여 2005년 4월 삼우중량물 회사를 법인으로 전환하였고, 올해 31주년 창립기념일을 맞이하면서 앞으로도 안전과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기업경영에 전력 매진할 계획입니다.

- 후손들의 인재양성을 위하여 거금 1천만원을 장학기금으로 기탁하셨는데 그 동기는?

장학 사업은 오래전부터 관심을 갖고 인재육성에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하여 학교발전에 기여한 활동이나 대외적으로 선양한 학생, 학업이 우수한 학생과 배움에 대한 열정이 있으나 생활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재단 설립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간 회사업무로 인해 추진하지 못하던 중 대중회에 장학 사업이 진행됨을 알게 되어 후손들의 영재육성을 위한 인력양성과 교육환경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장학금을 기탁하게 되었습니다.

- 앞으로의 계획은?

현 사업에 좀 더 매진하여 신뢰와 열정이 넘치는 기업을 만들고 탁상공론보다 발로 뛰는 경영을 함으로써 회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경영기반을 다져가면서 대표이사 사장에 장자영석, 상무이사에 둘째 상흥을 그동안 경험을 바탕으로 성장의 목표를 세우게 하고,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하면서 본인은 차후 장학재단 설립에 대한 꿈을 조금씩 이뤄나가려 합니다.

- 대중에 건의나 바람이 있으시다면?

전국적으로 흩어져있고 이용가치가 떨어지는 토지나 임야는 종재 관리에도 상당한 어려움과 비용이 소요되리라 사료됩니다. 그러한 부동산은 과감히 매각하여 임대수익이 가능한 부동산으로 전환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관리, 수익성면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대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뿌리교육은 열과 예의(관습)를 본받아 가문을 지키고 쇠락해가는 송조애족 정신을 배양하고 봉사정신을 더욱 함양케 하는 디딤돌로 삼아 자신의 뿌리를 찾고 조상의 은덕과 효를 되돌아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도록 널리 알려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하면 좋겠다는 바랍니다.

- 종인들에게 바람이 있으시다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4세조 청성백 정안공 선조님 재각 건립 행사는 매우 보람된 사업이라 사료되며, 성금이 조속히 답지하여 재각건립공

사가 순조롭게 완공되기를 청원 드립니다. 회장단과 재각건립 위원님들 노고에 찬사를 보내며 더 많은 지파중회와 종인들이 참여하여 주시면 좋겠다는 바랍니다. 장학 사업에도 종인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중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재육성이나 인력양성을 위한 장학금 모금사업에도 동참하여 존경 받는 명문가의 후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후세들의 영재 육성을 위한 종인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남기고 싶은 말씀이나 당부가 있으신지요.

사회 환원에 큰 뜻을 두고 후원지원금 사업에 대하여 생각한 바 "사랑밭"이라는 후원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는 국내외 빈곤과 질병에 시달리는 아이들과 이웃들을 돕고 있는 후원단체로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10여 년째 후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SBS희망 TV방송에 국제구호개발 NGO(사)굿피플 등에서 아프리카 희망학교 건축을 비롯하여 가난으로 소외된 어린이들의 긴급구호, 환경개선, 아동권리, 보건의료에 지원되는 후원단체에도 보다니은 삶을 위한 교육, 보건의료, 식수, 식량지원에 적은 금액이나마 열정으로 후원하고 있으니 자신이 만족스럽고 희망과 소망이 함께 샘솟는 것을 느낄 수 있어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 끝으로 맺는 말씀은?

끝으로 본인이 청송신문 중보의 "종인 소개" 란에 소개됨을 매우 뜻 깊은 보람으로 생각하며 재각건립 추진위원회와 회장단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종원님들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종인소개를 마치며

열정과 성의로 대중회의 각종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극택 종인의 순수하고 고귀한 마음에 감사드리며, 이를 기초로 우리 대중회의 유구한 발전은 물론 우리 후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감으로써 머지않아 이 나라의 중심이 될 거목이 우리 심문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며 종인소개를 마칩니다.

2016년 7월 5일
취재 및 대담 : 광섭 편집위원
배석 : 갑택 문화이사

차기 종인 소개 예정

- 2016년 9월(중보 121호) 예정
차기 종인 탐방 : 심후섭 박사
탐방일 : 2016년 9월 초
탐방원 : 성택 편집위원, 갑택 문화이사
언태 총무이사



좌로부터 갑택 문화이사, 극택 회장, 광섭 편집위원



삼우중량물(주) 사옥 앞에서
좌로부터 광섭 편집위원, 극택 회장, 갑택 문화이사

2000년 전 심가의 고향 중국 죽돈(竹墩) 지방을 다녀오다



청송심씨는 고려 충렬왕 (1274-1308) 때 문림랑을 역임 하신 흥부를 시조로 한다. 그러므로 한국 청송심씨의 역사는 700여년에 불과하다. 그러면 700여년 전 청송심씨의 뿌리는 과연 어디일까.

중국 절강성 호주시 능호진 죽돈촌竹墩村은 2000년전 심가들이 뿌리를 내리고 살던 지역이다. 죽돈의 심가들은 서한시대 말엽의 인물인 심용沈戎을 시조로 하고 있다. 청송과 이웃한 풍산심씨의 시조 심만승이 고려예종(1105-1122)때 이곳 죽돈으로부터 고려에 와서 정착하여 풍산심씨의 시조가 된 사실이 최근 죽돈심씨의 족보를 통해 밝혀졌다. 지금 우리 청송심씨가 중국 절강성 죽돈에서 왔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우리보다 연대가 앞선 풍산심씨가 죽돈에서 왔다면 청송심씨 또한 절강 죽돈에 뿌리를 두고 있을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 지난 6월 3일부터 2박 3일간 일정으로 청송심가 일행 (역사학자 심백강 선생, 청송심씨대중회 심재서 재무 이사, 광운대학교 심상렬 교수, 코리아 타임스 심재윤 부국장)은 우리의 뿌리를 찾겠다는 꿈을 안고 절강성 호주시 죽돈 마을을 다녀 왔다.

6월 3일 오후 4시 김포공항을 출발한 아시아나 항공기로 2시간여 후에 상하이 훙차우 국제 공항에 도착, 공항에 영접 나온 프리랜서 작가인 유운 선생의 안내로 봉고차에 올라타 죽돈으로 향했다. 1시간의 시차로 현지 도착 시간은 5시경. 2시간 정도 걸려 도착한 죽돈을 가는 내내 시선을 잡은 것은 끝없이 펼쳐지는 물의 향연이었다. 오죽하면 도시 이름이 호수호 자를 쓴 호주(湖州)일까. 실감이 났다. 큰 호수란 뜻의 태호(太湖)를 모태로 남쪽에 가지를 친 각각의 호수들은 축축한 기운을 뿜으며 이웃나라에서 온 나그네들을 반기는 듯 했다. 이윽고 도착한 죽돈 마을. 촌장과 당 간부등 지역 유지들이 모두 나와 우리를 반겨 주었다.

성심(沈)자에 물수(水)변이 있는 이유. 심가들의 물에 대한 애착. 많은 조상님들 묘역에 연못이 조성되어 있는 것이 그냥 우연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다. “천년 만에야 오셨군요” 그 들 중 마신경 촌장의 심씨 부인이 반갑게 인사를 건넨다. 동의립 죽돈지부 당시기의 부인도 심씨. 이들을 보는 순간 한국의 누이를 보는 듯 반갑고 혈육의 끌림을 어쩔 수가 없었다.

오랜만에 고향집에 모인 식구들처럼 즐겁게 만찬을 나누고 잠자리에 들어 다음날 본격적인 죽돈 탐방이 시작되었다. 죽돈 마을 출신 유명한 인사들을 기리는 기념관에는 역대로 지방을 다스렸던 심씨들의 목록이 빼곡했다. 당나라 시대 황후를 지낸 심진주의 동상, 원래 심가의 사당으로 건축되어 한때는 300 여명의 승려가 머물렀다는 절터 등을 답사했다. 죽돈의 2,300 여 주민 중 500 여명 심가의 최고 어른이자 족장인 심옥보 옹(82세)은 이전 죽돈을 지금보다 훨씬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으로 회상했다. 그분이 사비를 털어 새롭게 짓고 있는 승지당(承志堂). 선조의 뜻을 잇는다는 훌륭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여건 때문에 그리 좋은 재료를 사용하지는 않는 듯싶은 것이 아

쉬움으로 남았다.

죽돈 방문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한때 마치 안동의 하회마을처럼 50여 채의 웅장한 가옥이 있었다는 지역의 중심지인 심가의 시조를 모신 사당 터. 문화혁명(1966~1976) 당시 홍위병에 의해 모두 파괴되고 지금은 뽕밭으로 변하여 세월의 무상함과 후손으로서의 서글픔을 느끼게 했다. 2005년 다녀간 풍산심씨 일행에 의해 세워진 기념비가 한쪽에 서있을 뿐 적막감이 감돌았다.

이번 여행 중 알게 된 가장 놀라운 사실은 심가들이 세계 각국에 정착했을 뿐만 아니라 각 나라에 종친회 조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말레이시아 심씨, 인도네시아 심씨, 싱가포르 심씨, 호주 심씨, 미국 심씨 등. 이런 조직에 힘입어 재작년 북경성에서 ‘세계심씨종친대회’가 최초로 열려 약 2,000명이 참가했고, 작년 2회 대회를 거쳐 금년 3회 대회를 준비 중이란 사실이다.

이는 심가들의 끈끈한 가족애와 성씨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세계 어디에도 이런 유례가 없다는 점에서 심가로서의 자랑스런 부분이라 하겠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호주의 많은 마을들이 그렇듯 죽돈도 물이 풍부한 관계로 뽕나무 재배가 잘되어 자연히 잠업이 발달하고 비단생산의 주요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이태리 베네치아에서나 볼 수 있는 수로와 배를 이용한 운송은 옆나라인 고려와의 무역을 촉진했고, 그 중 한명인 심만승이란 분이 1122년 고려에 정착하면서 (풍산)심씨의 시조가 되었다고 죽돈 지방에서 발간한 자료가 중국 심가의 족보를 인용 설명하고 있다.

청송심씨의 시조이신 흥부 선조는 풍산심씨 시조인 심만승보다 약 180년 후의 인물로 그 간극을 명쾌히 밝히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과 중국 심씨 간 자료 교환 등 대중회를 통한 심씨 뿌리 찾기 작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아울러 절강성 차원에서 역사 문화 유산 발굴 개발의 일환으로 죽돈의 심가 문화관을 오는 8월에 개관한다고 한다.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관심으로 심가의 원류를 찾는 것이 한국내 90 퍼센트가 넘는 절대 대다수인 청송심씨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대중회와 안효공종회, 인수부윤군종회 등 주요 파종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아야 할 것이다.

이번 방문으로 한중간 심가는 같은 근원에서 비롯된 것을 확인했다. 향후 이러한 교류가 지속된다면 이는 양국간 민간 외교 차원에서도 획기적으로 반길 일이다. 다만, 심가 뿌리 탐방이 중화사상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예로부터 중국의 동쪽지역인 산둥성, 강소성, 절강성은 우리민족의 원류인 동이족에 속했다. 그러므로 섬서성 근방을 중심으로 정착해 살던 한족과는 구분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역사는 현재와 닮아있고 미래의 이정표인 것이다. 이번 탐방은 심가의 뿌리와 정체성을 찾아가는 단초가 되었다고 본다. 향후 한중간, 풍산심씨와의 협력 등을 통해 우리 청송심씨의 기원을 더욱 명확히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600만 중국 심가를 포함한 전세계 심가들과의 국제 교류를 활발히 하여 자라나는 심문의 자손들이 상호 협력하고 상부상조하는 전통을 만들어 감으로써 존경과 사랑을 받는 공동체로 진화해 나가기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탐방기사: 재운 편집위원
탐방자 : 백강, 상렬, 재운 편집위원, 재서 재무이사
(중국 심씨 본향 탐방경비는 각자 부담하였음을 첨언합니다.)



죽돈 沈氏 발상지로 사당(祠堂)이 있었던 터 (현재는 뽕나무밭) 좌로부터 상렬 편집위원 / 재서 재무이사 / 백강, 재운 편집위원



죽돈 마을회관 방명록 서명



죽돈 마을회관 벽의 크고 선명한 沈 표식



죽돈 심씨 족장 심옥보 옹 (가운데)과 함께



죽돈 마을 정문입구에서 마을 간부들과 함께



죽돈 촌장 주재 환영 만찬(참석자 대부분이 沈氏)



청송심씨 대구 청·장년회 탐방



심 훈 택(沈勳澤)
동흥스프링 대표

수석부회장 : 심광열 부 회 장 : 심상적
감 사 사 : 심삼복 재 무 : 심요안
총 무 : 심유택

◇ 종회구성 및 운영

대구종회 청·장년회는 대구에 거주하는 청·장년층 종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은 현재 55명이다. 임원은 회장1명, 부회장2명, 총무, 재무, 감사 각1명, 고문5명이고 임기는 2년으로 연임 할 수 있으며,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고 있다.

◇ 설립동기와 목적

선조들의 훌륭한 위업을 계승 발전시켜 종인들의 자긍심을 드높이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단결을 도모하며 청·장년회 활동과 경험을 쌓아서 향후 대구종회를 이끌어 갈, 후진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하였다.

◇ 연혁

1988년도에 당시 대구종회 총무이신 홍섭(직전 대구종회장) 종인의 발의로 대구종회 회장단의 지원으로 설립되었고, 설립 초기에는 3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었다.

역대 회장으로는 재욱 초대회장에 이어 노수, 훈(載), 성만, 정수, 훈(輔), 상한, 상배, 삼복, 현보, 학보, 흥식 종인이 맡아왔으며, 현재 13대 회장에 훈택, 총무에 유택 종인이 담당하고 있다.

◇ 연중행사

1989년부터 매년 음력 정월에 대구종회 임원들을 초대하여 정을 나누고 세배를 드리는 신년교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매년 대구종회 정기총회 시에는 부부동반 참석하여 행사 안내, 접대 등 각종 지원활동에 솔선수범하고 2년에 한 번씩 시조 묘소를 비롯하여 각처에 있는 선조들의 묘소와 고택, 제각 등 유적지를 순방하여 조상님들의 업적을 기리고 배우며 견문을 넓히는 노력을 하고 있다.

◇ 청·장년회 자랑

2002년에는 청·장년회에 조성된 기금 1천 만원을 대구종회의 발전 기금으로 기부하였고 매년 회원 부부동반 야유회를 실시하여 결속을 다지고, 경조사에도 참석하여 내 일처럼 보살펴주며 상부상조 정신을 실천하여 후손들에게 귀감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청·장년회의 활동경험을 바탕으로 대구종회 이사로 진출하게 됨으로서 대구종회 운영이 더욱 활성화 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 앞으로의 계획

종회 원로인사를 초빙하여 “선조들의 업적과 족보, 예절에 대한 특강”을 매년 1회 정도 실시하여 회원들에게 보학(譜學), 예절에 대한 지식을 넓히고 애족심과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고 청·장년회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더 많은 종인들이 참여 할수 있도록 회원 확보에도 노력하겠다.

◇ 일가 여러분에게

직장생활과 개인 사업으로 바쁘다는 이유로 종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종친들이 많지만, 이외로 대구에 거주하면서 대구종회나 대구청장년회의 활동을 모르고 계시는 일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주변 분들에게 소개하고 권유하여 송조애족 정신함양에 동참 하면서 일가의 정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협조 드립니다.

◇ 탐방을 마치며

대구종회 청·장년회는 전국청송심씨 지역종회에서 보기 드물게 남녀 구분 없이 대구에 거주하는 40대에서 60대로 구성되어 매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종회였다.

회원 상호간의 애경사에 적극참여하여 일가의 정을 나누며, 조상님의 위업을 계승하려는 노력이 돋보였다.

특히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뿌리교육을 통해 조상숭배와 효를 가르쳐 청송심씨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주고자 하는데, 많은 관심과 의욕을 엿볼 수 있는 모범적인 종회를 운영하고 있었다.

탐방하던 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점심 식사를 하며 “대종회에서 선조들의 사적 홍보, 증중재산 관리업무” 등 대종회 발전을 위한 대화를 나누었다.

특히 그 자리에서, 스마트폰으로 “조선의 10대 명문가”를 검색하여 우리 청송심씨가 상위권에 올라 있는 것을 보면서 참석자 모두가 훌륭한 조상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랑스러움에 앞서 후손으로서 우리의 역할에 대하여 깊은 성찰의 기회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비가 오락가락하는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함께해주신 대구종회 우정(宇正)회장님을 비롯하여 청·장년회원 여러분의 환대에 감사드리며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빕니다.

글·대담 : 성택 편집위원
동석 : 갑택 문화이사, 언태 총무이사

차기 종회 탐방예정

차기종회탐방 : 이경공종회(회장 : 주택)
탐방일자 : 2016년 9월 초
탐방자 : 재석 편집위원, 갑택 문화이사, 언태 총무이사



신년교례회



월례회의



탐방을 마치고 종원들과 함께

대종회 역사



우리 청송심씨는 1894년 갑오경장(甲午更張) 이전에는 대대로 전·현직의 고위직에 재임하면서 문중을 빛냈던 분들에 의해 종원(宗員)들을 지도해 둔목(敦睦)과 위선사(爲先事)가 이루어져 오다가 갑오경장 이후에는 호장제도(戶長制度)가 폐지되어 부득이 첨종(僉宗)의 둔목과 위선사를 위해 구한말(舊韓末)인 융희(隆熙) 3년(1909년)에 발족된 종약소(宗約所)를 시조로 면면히 계승되어 오다가 광복후에는 둔목회(敦睦會)로 개칭됐다가 다시 찬경회(讚慶會)로 개칭됐으며, 1971년 5월 30일 발전적인 개편에 따라 청송심씨대종회(靑松沈氏大宗會)가 창립되었다.

대종회 「40년 역사」에서 발체 - 언태 총무이사 -

대종회(大宗會) 첫 번째 체계적인 활동의 첫 산물(産物)

- (을사보) 大同世譜 -

시조님 제향을 모시고 전체 종원(宗員)을 지도하고 위선사(爲先事)를 총괄하며 대동세보를 발간하는 활동 등을 하는 조직이 대종회이다.

청송심문의 첫 번째 조직적인 대종회 활동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은 1545년 통원(通源/좌의정)선조께서 대동세보(을사보)를 발간한 일이다.

을사보 서문에서 **‘나무의 뿌리가 튼튼하고 두터우면 가지가 무성한 것과 같고 물의 근원이 깊으면 마르지 않고 언제나 흐른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청송심문을 뿌리 깊은 나무와 깊은 샘물에 비유해 영원한 번성을 축원(祝願)하셨다. 그 당시 교통수단은 말이나 우마차가 다였을 텐데 전국을 돌며 대동세보를 만든 선조님들의 송조돈족의 열정과 노고를 생각할 때 저절로 고개가 숙여 진다.

대종회 「40년 역사」에서 발체 - 재서 재무이사

대중회 뿌리교육 및 교양강좌의 이모저모



뿌리교육 참가자 단체 사진



시조묘소 참배



심가의 고향 죽돈방문을 설명하는 상렬감사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동영상<성씨의 고향> 관람

부 고

심문의 최고 연장자이신 魚澤 대중회 고문께서 2016. 7. 22 별세하시어 황성선영에 모셔졌습니다.

대동세보(경진보)와 수권속편 할인 보급안내

대중회에서 발간한 大同世譜(庚辰譜)와 首卷續編을 대폭 할인하여 보급합니다. 一家여러분께는 널리 알려주시고 이 기회에 1질씩 모시기 바랍니다.

구 분	판매가격
대동세보 경진보 1질	60,000원
대동세보 수권 1권	
수권속편 1질	50,000원
청송심씨세고선(한시집) 1권	
종보축쇄관 1권	
제향홀기(휴대용) 1개	
종사수첩(휴대용) 1권	
배지 1개	



2016년도 추향일

구 분	장 소	양 력	음 력
시조흥부(諱:洪孚)	경북 청송군 청송읍 덕리 (보광산)	10월 9일	9월 9일
2세조 합문지후공(諱:淵)	전북 익산시 함열읍 남당리 산64(남당산)	10월 11일	9월 11일
2세조 봉익대부공(諱:晟)	강원도 철원군 동성읍 양지리31(철단)	10월 25일	9월 25일
3세조 청화부원군(諱:龍)	경기도 안성시 당왕동 산19	10월 13일	9월 13일
3세조청화부원군배위(金氏)	경기도 안성시 도기동 산64	10월 13일	9월 13일
4세조 청성백(諱:德符)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야미리	10월 15일	9월 15일
4세조 청성백배위(淸州宋氏)	충북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산8(분동)	10월 17일	9월 17일

靑城伯(諱:德符) 연보(年譜) 中 **오이 밭을 가꾸시는 청성백**

-乙亥年 태조대왕 4년 서기1395년 공 68세-
태조가 일찍이 제신(諸臣)을 경복궁(景福宮)에서 잔치를 베풀고 공에게 유시(諭示)하기를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모두 경등의 힘 때문이라' 하니 공이 사례하고 '대의(大義)를 빛내 천명(天命)에 따른 것은 전하의 신성(神聖)이지요. 신(臣)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했다.
(並出列 聖誌狀錄)

청파교위에 지었는데 공이 거처한 집은 초가 8.9칸이고 그 근처에는 오이밭이 있었는데, 공사가 아니면 일찍이 샷샷 쓰고 호미 쥐고 다리를 내놓고 밭의 김을 뽑았다.
태조가 때로는 몰래 사람을 시켜 엿보게 하고는 공은 밭 매고 계시다고 보고 하면 태조가 기꺼이 안심하고, 만일 문 닫고 고요히 계시다고 하면 태조가 종일 불쾌한 빛이라 했으며, 지금 청파라고 부르는 것은 靑松沈氏 골이고, 청성백(靑城伯)이 여기에 사셨기 때문이라 한다. (出野史)

중보편집위원 위촉(2016. 6. 1)



심재윤
한국일보 KOREA TIMES
경제부장/부국장



심양섭
청심회 사무총장
(주)예술 꽃 회원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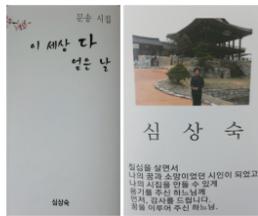


심왕섭
한국조경협수협회
서울지회장
(주)세림조경건설 대표



시집 발간

춘천선천공대선종회 상숙 종인께서 문송시집 <이 세상 다 얻은날>을 발간하였다.



책 발간

청송군청에 근무하는 남규일가가 덕천마을 600년 역사의 흐름을 담은 향토지 <내고향 덕천 그 삶의 발자취>를 발간했다.



공지사항

- 청성백·정안공 재각건립을 위한 성금 안내
 - 2차 재각 건립 헌성금 모금운동을 2016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진행합니다. (농협 301-0159-0778-41 청송심씨대중회)
 - 2017년 1월 중보에 2016년 12월말까지 접수된 재각건립 헌성금 내역을 게재합니다.
- 대중회 홈페이지 안내
 - 대중회 홈페이지 주소를 모르더라도 "청송심씨대중회"를 포털사이트에서 클릭하여 접속(검색)할 수 있습니다.
 - 대중회 홈페이지는 7가지 메뉴(대중회 소개, 뿌리탐구, 인터넷 족보, 동영상, 열린마당, 자료실, 종보신문)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중회 사업추진사항 및 심문의 뿌리와 선조님의 발자취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동영상-선현의 발자취, 성씨의 고향 추가 등재)
- 각종 찬조금 명세에 착오가 있을 경우 필히 대중회 재무이사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보찬조 지로용지는 7월과 11월 중보에 동봉 발송합니다. (찬조금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자발적 참여임을 알려드립니다)
- 모범 종인 소개를 위한 종인탐방이나 종회활동을 전국 종인들에게 소개하는 종회탐방을 희망 시 대중회 감택 문화이사에게 신청바랍니다.
- 2000년도에 발간된 대동세보(경진보)를 대폭 할인하여 1질(총 11권)에 6만원에 보급합니다.

송금안내

청성백 정안공 재각건립 헌성금 입금계좌
청송심씨대중회
농 협 : 301-0159-0778-41

송금안내

임원회비·종보찬조·장학찬조·족보대금 등 입금계좌
청송심씨대중회
농 협 : 301-0107-5873-71